



고균성 간염(孤菌性 肝炎) (Avian Vibrionic Hepatitis)

원 송 대
<한국 카아질 기술지도부장>

고균성 간염(Avian vibrionic hepatitis)이란 닭이 만성 또는 아급성 전염병이며 간의 실질변성(parenchymatous degeneration) 및 괴사(necrosis)가 특징이다.

감염은 모든 주령에 감염될 수 있으나 주로 대추이상 성계에 잘 발병한다.

병원균은 고균(vibrio)의 세균으로 아직 병원균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전염방법도 불명하나 주로 경구 감염인듯 하다.

이 병은 한번 발생된 양계장은 반복해서 발생하므로 골치아픈 병이다.

증상(symptom)

초산계에서는 급성으로 발생하여 갑자기 폐사하는 수가 있으나 대개 모르는 사이에 일정한 장소에서 발생되어 산란계에서도 산란율이 25~30%정도 떨어진다.

벼슬이 시들고 비늘이 생기면서 설사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쇠약하여 여윈다.

그러므로 도래계가 많이 생긴다.

해부 소견(postmortem)

이 고균성 간염은 간에 병변이 현저히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간이 담즙으로 착색되어 녹색을 띄면서 회백색의 괴사반점이 생기는 것이 해부적 소견이다.

혹 간표면에 병변이 안나타나고 내부에만 병변이 생길 경우도 있다.

빠로는 간피막에 혈종(hematocysts)이 생겨 마치 물거품같은 모양이 보인다.

이 혈종이 간혹 파열되어 간출혈로 복강내에 혈액이 고이는 수도 있다.

그의 장기(organ)에는 심장이 종대되고 심장종대(수심막염)는 어린 닭에서 잘 보인다. 비장은 2~3배 종대되어 황색의 괴사점이 보인다.

종종 이 병이 통과하면 카달성 장염이 생기고 복수가 생겨 복부를 만지면 땡땡하다.

간의 종대와 괴사는 다른 질병에서도 잘 나타나는 병리 소견이다.

즉 간혈 백혈병에서도 보이고 중독성 간의 병변에서도 나타나고 지방간에서도 볼 수 있으므로 임상적 비교진단을 잘 해야 한다.

진단(Diagnosis)

병리 해부 소견으로 임상학적 진단이 도움이 되는 수가 많다.

즉 산란율의 감소 도태계 증가 간의 병변은 고균성 간염을 추론하는데 참고가 된다. 그러나 확실한 진단법은 병체의 담즙을 부화 계란의 난황낭에 접종하여 균을 분리, 배양하는 실험실 진단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예방과 치료

예방으로는 낮은 농도의 투약으로 가능하다.

즉 테라마이신이나 후라조리돈을 사료에 첨가하여 먹여든지 설파메다진(Sulfamethazine)을 음수로 먹여든지 스트렙토마이신과 같은 항생제를 주사하여 예방할 수 있다.

역시 치료도 후라조리돈(furazolidone)을 사료 톤당 200~400g 혼합하여 14일간 먹이면 치료가 양호하다.